동서붕당을 없애라

사림의 동요

이와 서캐[1] 같이 보잘 것 없는 제가 하늘에 죄를 지었는지 고질병이 몸에 생겨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오직 임금을 사랑하는 한 가지 생각만은 조정에 나아가나 물러나 있으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사이 전하께서 천재(天災)를 만나 두렵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구언(求言)[2]하는 하교(下敎)[3]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다시 대궐문 앞에서 부르짖어 성안과 변경의 방비가 소홀하여 적이 이르면 반드시 패하게 되는 상황과 함께 병사를 양성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불시의 변란에 대비하여야 하는 대책을 깊이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본래 천박하여 전하께 신임을 받

1 서캐: 머리에 붙어사는 이의 알
2 구언(求言):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널리 구함
3 하교(下敎): 임금의 명령

지 못하여 전부터 연달아 올린 글이 모두 헛말로 돌아가 첩첩히 무익하게 되었으므로 민망하여 중지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잇달아 들었습니다만, 시론(時論)[4]이 고요하지 못하고 사류(士類)[5]가 녹아 흩어져 조정에서는 화평한 기운이 날로 없어지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뜬 의논들이 구름같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천장만 쳐다보며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바입니다. 또 제가 작은 정성으로 감히 전하께 말씀드리지 못하나, 이 때문에 때로는 깊은 밤중에 베개를 어루만지며 염려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를 부르시는 명을 내려 대사간(大司諫)[6]의 직책을 맡기시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더욱 황공합니다. 저의 재주는 서툴고 병이 깊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일찍이 다 말씀드려서 전하의 성총을 흐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옛 병은 낫지 않고 새로운 지식은 자라지 않으니 분수와 의리를 헤아려 보아도 오히려 관직에 나아갈 길이 없어서, 동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만 헛되이 날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니 전하의 은혜가 중첩해서 갈수록 더해지는데도 제가 지금 몸소 나아가지 못하고 또 입으로도 말이 없으면 저의 죄가 더욱 클 것입니다. 이에 어리석은 소견을 말씀드리니 슬기롭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4 시론(時論): 당시의 여론
5 사류(士類): 선비의 무리로서 사림(士林). 선비 사회
6 대사간(大司諫): 사간원의 으뜸 벼슬로 정3품

해설

이 글은 선생의 나이 44세 되던 1579년(선조12) 5월 22일에 올린 상소이다. 원래의 명칭은 「사대사간겸진세척동서소(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로서 곧 '대사간을 사직하고 겸하여 동서(東西)의 붕당(朋黨)을 없앨 것을 올린 상소'이다.

이 부분은 그 서두로서 이 상소를 올린 경과와 배경을 말하고 있다. 임금의 구언(求言)하는 하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국방과 민생에 대한 글을 올리려고 했으나, 선조의 신임을 받지 못해 올리지 않았다는 경과를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소를 올린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시론(時論)이 고요하지 못하고, 사류(士類)가 녹아 흩어졌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동서붕당으로 사림이 동요하여 어수선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사간직을 사임하는 내용이다. 이유는 두 가지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일과 관련이 있다. 바로 동서붕당의 문제 때문이다.

붕당이란 특정한 학문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정치집단을 말한다. 일제식민사관의 영향으로 흔히 붕당정치를 말하면 당쟁이나 당파싸움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세력 간 대립하지 않는 정치는 없다. 중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동서붕당이 있기 전 우리 역사만 해도 각 시대마다 정치적 이

해관계를 같이한 무리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었는데, 특히 권력자를 중심으로 모인 경우가 많았다.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려 우리 민족성이 그렇다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치집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해관계가 없이 하나로 일치하는 현상은 이상론임과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현실은 이상론처럼 되지 않고 대개 권력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을 중심으로 정치집단이 이루어지며, 그 경우 대개 독재정치로 흐르게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준 일이기도 하다.

이 때의 일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펴보면 조정의 이 분위기는 동인이 주도하고 있고, 그 후대나 요즘 학자들이 평가하는 부분과 겹치는 곳이 더러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인이었던 이원익(李元翼)의 평가인데, 곧 선생이 두 당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동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사직의 상소를 올린 것은 현대의 여러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선생이 동서붕당 사태를 조정하려고 노력한 데서 빚어진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이런 붕당을 어떻게 조정 또는 해소하려고 하였을까? 이어지는 글을 더 읽어 보자.

한문 원전 음미하기

臣本淺薄하여 不能見信於聖明하노이다.
신 본 천 박　　불 능 견 신 어 성 명

時論不靖하고 士類泮渙하여 朝廷之上엔 和氣日消하고
시 론 부 정　　사 류 반 환　　조 정 지 상　　화 기 일 소

閭巷之閒엔 浮議雲興하노이다.
여 항 지 간　　부 의 운 흥

» 어휘 풀이

臣: 신하/本: 본래/淺薄: 학문 · 생각 · 행동 · 덕이 얕고 얇음/不能: ~할 수 없다/見: 당하다/信: 믿다/於: ~로부터/聖明: 임금의 밝은 지혜로서 임금의 뜻/時論: 당시의 여론/不: ~아니하다/靖: 편안하다, 고요하다/士類: 선비의 무리, 사림/泮: 녹다/渙: 흩어지다/朝廷: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모임 또는 장소/之: ~의/上: 위/和氣: 화평하거나 온화한 기운/日: 날마다/消: 사라지다/閭巷: 백성들이 사는 마을. 여염(閭閻)/閒: 사이. 間과 같은 뜻이며 이때 보통 '간'으로 읽음/浮: 뜨다/議: 의논하다/雲: 구름/興:일어나다

» 문장 구조

1. 크게 독립된 두 문장이나 각 문장에는 여러 문장이 연접된 구조이다.
2. '臣本淺薄, 不能見信於聖明'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 '臣本淺薄'은 주어+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臣이 주어이며 淺薄은 두 형용사가 합쳐져 하나의 술어가 되었고, 本은 부사로 쓰였다.
3.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不能見信於聖明'은 주어가 臣인데 반복되어서 생략되었다. 이 문장의 본동사는 信인데 見이 첨가되어 수동태인 피동형으로 되어있다. 원래 능동태의 문장은 '聖明不能信臣'의 3형식인데, 피동형으로 바뀌면서 見이 들어가고 聖明 앞에 於가 붙으면서 반복되는 주어 臣은 생략되었다. 이때 見은 보통 '당하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문장은 주

어+동사의 형식이 되고 於聖明은 부사구가 되었다. 不能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가능을 부정하는 조동사이다.

4. '時論不靖, 士類泮渙'도 뒤 문장에 대한 원인이다. 時論不靖은 주어+형용사, 士類泮渙은 주어+동사의 형식이다. 주어는 각각 時論과 士類의 명사구로서 時와 士가 제각기 論과 流를 꾸며주고 있다. 靖은 형용사 泮渙은 복합동사이다.
5. '朝廷之上, 和氣日消, 閭巷之閒, 浮議雲興'은 앞 문장에 대한 결과인데 두 개의 문장이 병렬된 구조를 이룬다. 곧 '朝廷之上, 和氣日消 ; 閭巷之閒, 浮議雲興'이다. 문장은 길어 보이나 이 또한 제각기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의 문장으로 원래의 문장은 '和氣日消於朝廷之上 ; 浮議雲興於閭巷之閒'인데, 강조하기 위해 부사구였던 於朝廷之上과 於閭巷之閒을 앞으로 옮기면서 於를 생략하였다. 그러니까 문장구조는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의 문장이 되었고 주어는 제각기 和氣와 浮議이고, 동사는 消와 興이다.
6. 朝廷之上과 閭巷之閒에서 之는 관형격조사로 之 앞에 있는 말이 제각기 뒤에 오는 말을 꾸며준다. 和氣와 浮議은 명사구로서 和와 浮가 氣와 議를 꾸며주며, 日과 雲은 부사로 쓰였다.

» 해석

신은 본래 천박하여 전하께 신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론(時論)이 고요하지 못하고 사류(士類)가 녹아 흩어져, 조정에서는 화평한 기운이 날로 없어지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뜬 의논들이 구름같이 일어납니다.